

대인대상과 인지양식에 따른 유아의 대인간 문제해결능력

Children's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Performance with their Cognitive Styles and Interacting Subjects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석사과정 윤 주 리
조교수 황 헤 신

Departmen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

Master Course : Yun Ju Ri

Assistant Professor : Hwang Hae Shin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결과 및 해석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children's cognitive styles on their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performances. It examined closely whether children's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performances differed depending on their individual cognitive styles such as field independence-field dependence and reflection-impulse cognitive styles. It also examined whether children's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performances differed depending on the subjects children interacted with. The subjects were 80 5- and 6-year-old children from three child care center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Win 10.0 and processed statistically using average, standard deviation, and repeated measures design.

Children's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performances showed differed according to the subjects they interacted with. Children showed better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performances with their peers than with adults like teachers or parents.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hildren's field independence-field dependence cognitive styles and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performances. That is, the more independent children were, the higher their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performances were. In addition, there was a partially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children's reflection-impulse cognitive styles and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performances. The more impulsive children were, the lower the problem solving performances were.

주제어(Key Words): 대인문제해결력(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performance), 인지양식(cognitive styles), 장독립적-장의존적 인지양식(field independence-field dependence cognitive styles) 사려적-충동적 인지양식(reflection-impulse cognitive styles), 대인대상(interacting subjects)

I. 서론

유아기는 가정이라는 작은 테두리를 벗어나 교육기관이나 또래집단과 같은 확장된 곳에서 좀 더 넓은 인간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유아들은 사람들과 여러 가지 갈등을 경험하게 되며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되므로 유아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즉, 대인간 문제 해결능력이 요구된다.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이란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이나 방법들을 강구해 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Shure(1992)는 대인간 문제해결능력을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 문제에 대한 대안적 해결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인 대안적 해결사고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수단을 창안할 수 있는 능력인 수단-목적 사고력, 자신이 행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인 결과적 사고력, 자신 혹은 타인의 행동이나 감정에 대한 동기나 원인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인 원인적 사고력으로 설명하였다. 대인간 문제 해결능력은 어릴 때 키워지는 것으로서 유아에게 독립심을 길러주고 자아존중감을 증진 시켜준다. 반면, 유아기에 대인관계 기술의 결함 때문에 또래에게 적응하지 못하면 부적응 행동이 나타나며 그러한 부적응이 청소년기 후거나 성인기 초기까지 지속된다는 보고들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유아기의 대인간 문제해결능력이 일생동안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므로 대인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대인간 문제 해결능력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대인문제 해결 효율성이 유아의 사회적·정서적 적응과 관련된다는 것이 강조(정운주, 1993; Shure, 1982)된 이후이다. 친구가 적거나 거의 없는 유아는 사회적 기술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권영실, 1988), 가상적인 상황에서 역할놀이를 했을 때 인기 없는 유아가 인기 있는 유아보다 친구를 사귀는 기술이 부족했다(권영실, 1988; Gottman, Gonson, & Rasmussen, 1975). 또한 인기 없는 유아가 인기 있는 유아보다 친구를 사귀고, 친구 관계를 유지하거나 갈등을 해결하는 가상적 상황에서 부적합한 방법을 사용했다.(정운주, 1993).

대인관계, 특히 또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문제를 다루는 능력의 발달은 유아기의 주요 발달과업으로 여겨진다. 즉, 대인간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유아가 타인과 상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 나가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타인과의 문제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고하는 능력에 해당하는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은 유아의 사회적 적응 뿐만 아니라 이후의

원만한 학교 적응을 위해서도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유아기의 사회성 발달에 대한 연구가 예전보다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대인관계 능력을 포함한 유아의 사회성 발달은 유아기 신체와 인지, 정서발달에도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면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성미영, 2006; 유민임, 2005).

그동안 대인간 문제 해결능력에 있어서 연령, 성, 대인대상, 지능 등 대인간 문제해결능력의 발달을 결정하는 아동의 특성과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연령에 대한 대인간 문제 해결능력의 선행연구에서 박찬옥(1986)은 6세, 8세, 10세 아동을 대상으로 대인문제 해결사고의 4가지 하위사고를 측정된 결과 대안적해결사고, 결과예측사고, 수단-목적 사고에서 인기가와 비 인기가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으며 김은희(1990)는 4세와 6세 유아의 대인간 문제 해결 능력에 관한 연구에서 유아의 대인간 문제해결 범주 수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학령 전 유아와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인간의 문제 해결 전략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된다고 보고 하였다.

반면, Richard와 Dodge(1982)는 초등학교 2-3학년, 4-5학년을 대상으로 대안적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능력을 알아본 결과 연령의 증가와는 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보고하였고 Guerra와 Slaby(1989)는 초등학교 2-3학년, 5-6학년을 대상으로 대인간 문제해결능력을 연구한 결과 문제해결 방안의 수는 연령의 증가와 관계가 없다고 보고 하여 연령이 대인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일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대인문제해결력의 성별에 관한 연구에서는 유재은(2001)이 유치원 유아를 대상으로 대안적 사고 검사를 실시한 결과 성차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만 4세, 6세 유아를 대상으로 대안적 사고를 검사한 김은희(1990)의 연구결과와 유아,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결과예측 사고검사를 실시한 연구의 결과에서 모두 성차가 없다고 보고 하였다.

반면, 정운주(1993)는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수단-목적 사고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방안의 수와 그에 따른 반응 범주에서 성차가 나타났으며 여아가 남아보다 총 방안의 점수가 높다고 보고 하여 성에 따른 대인간 문제해결력 또한 일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대인간 문제해결능력이 또래와 성인과의 바람직하고 원만한 관계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요인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지만 또래와 성인과의 관계에 차별성을 두고 접근한 연구는 거의 없다. 최근에 대인간 문제해결능력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남현영, 이소은, 2004; 성미영, 2006; 손승희, 이은혜, 2004; 심혜숙, 왕정희, 2001; 유민임, 2005; 조은정, 2004)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은 대인간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성별과 연령, 인지양식, 정서지능, 정서성, 정서지식, 사건지식 등을 설정하여 이들 변수들이 대인간 문제해결능력에 주는 영향을 잘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들의 기본 전제는 유아들의 대인간 문제해결능력 대인대상이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동일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이 대인간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이 대인 대상에 따라 다르다는 전제 아래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이 성인이나 또래, 성인 내에서도 부모나 교사, 같은 또래 내에서도 친한 친구나 그렇지 않은 친구의 경우에 따라 같은 양상이나 정도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주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관심을 갖고 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Dodge, Pettit, McClaskey 와 Brown(1986)는 유아가 대인대상이 성인일 때와 유아일 때 상호작용하는 행동 유형이 다르다고 하였다. 유아 대 성인관계에서, 유아는 성인에게 의존하고 간청과 순종으로 대하며, 유아에 대한 성인의 행동은 유아를 통제하며 지배와 훈육으로 대한다고 하였다. 반면, 유아 대 유아 관계에서는 유아들이 대부분 사회적, 우월성, 저항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대인대상에 따른 유아의 대인문제해결력을 검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유아의 사회적 발달에 있어서 또래 못지않게 성인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유아-성인에 대한 대인 문제 해결능력에 관한 연구가 드문 실정이고 기존의 연구(김은희, 1990; 정운주, 1993)에서는 그 대상을 유아와 성인으로만 나누어 연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같은 성인이라고 유아가 어머니와 교사를 대할 때 접근 방식이나 반응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유아-어머니-교사로 나누어 대안 특성에 따른 대인간 문제 해결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최근에는 대인문제 해결을 아동의 인지양식과의 관계에서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 유아의 인지적 과정의 지각방식을 설명해 주는 여러 변인들 중 하나의 개념이 인지양식이다. 인지양식은 개인마다 상황을 다르게 인지하고 접근하는 양식이다. 장 독립성-장의존성 인지양식은 초기 연구에서 지각이나 인성 특징, 인지적 능력 등을 강조하던 것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많이 변화했다. Goodenought(1976)는 대인 관계 영역을 장 독립성-장의존성과 직접 관련시키면서 초기의 심리적 분화 이론에서 한 걸음 나아갔다.

대인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조망 능력과 관계가 있으며, 이 능력은 장 독립적인 유아가 더 우수하며 장 의존적인 유아는 타인의 감정이나 외부준거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대인문제 해결력이 낮을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유아의 장 독립성-장의존성 인지양식과 대인문제 해결력간의 관계를 입증해 볼 필요가 있다.

Kagan 과 Kagan(1980)은 인지양식을 외부환경을 조직하

고 범주화하는 양태에 있어서 개인의 항상적인 기호로 정의했으며 특히 불확실하고 애매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선택대안 중에서 특정한 정보를 선택해야할 때 나타나는 인지양식을 사려성-충동성 인지 양식이라 했다. 사려성-충동성 인지양식은 개인들이 문제 해결의 대안에 대해 생각하는 범위나 불확실한 상황에서 해결책에 접근하는 상이한 방법에 대한 의견이나 주장을 평가하는 관점을 보충한 것이다. 이러한 사려성-충동성 인지양식은 논리적 사고과제, 개념형성, 학업성취, 문제해결과제 등과 관련되어 연구되어졌다. 사려적 아동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범할 수 있는 오진에 신경을 쓰나, 문제해결에 대해서는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충동적인 아동은 문제해결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자신이 없어 가능한 그런 불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정확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Perter와 Bernfeld(1983)는 사려성-충동성 인지양식 집단과 사회적 추론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여 인지양식에 따라 사회적 추론능력이 다름을 밝혔다. 사려성이 높은 사람은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며 충동적인 사람은 반항적이고 화를 잘 내고 타인에 대한 우호성, 책임성이 적어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사려성-충동성 인지양식은 학습문제 해결 뿐 아니라 사회적 추론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 사회적 추론 능력 중의 하나인 대인문제해결능력 또한 인지양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대인문제해결능력을 사려성-충동성 인지양식과의 관계에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으므로 이를 규명하는 것도 의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아직 인지양식과 대인문제 해결력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대상 연령 또한 아동기에 집중되어 있다. 5, 7, 9세를 중심으로 대인문제 해결능력의 연령, 성차와 인지양식과 대인문제 해결력간의 관계를 본 기존의 연구에서는 인지양식과 대인문제해결력과의 관계가 학령기 아동에게만 의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운주, 1993). 이 결과는 Piaget의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로, Piaget는 전조작기 유아들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타인의 관점이나 감정을 이해하는 조망수용능력을 획득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여 대인간 문제해결능력이 떨어진다고 여겨져 왔으나 Piaget가 전조작기 아동들의 지적능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했다는 비판과 함께 전조작기 유아들도 조망 수용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Bullock & Gelman, 1979), 전조작기 유아들도 대인간 문제 해결 능력이 가능하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대인간 문제 해결 능력을 이론화한 Shure(1992)은 아동은 4세부터 대인간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형성된다고 주장하였고, 4세 이후의 각 연령층에서 사회

적 적응 정도에 따라 대인간 문제 해결사고가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보는 연구에서도 4, 5세 유아들이 대인간 문제 해결 능력의 하위요소인 대인적 해결사고, 결과 예측사고와 적응과의 관계에서 높은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와 이론을 토대로 학령 전 유아들도 대인문제해결능력이 있다는 전제아래 대인문제해결능력과 인지양식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최근 인지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현실에서 유아들이 대인 관계와 같은 사회적 상황에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대처하는 양상과 그들에게 어떠한 면이 부족하지 파악한다면 유아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유아의 능력과 관련된 변수를 밝히는 일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만 5, 6세 유아를 대상으로 대인간 문제해결능력의 연령과 성에 다를 차이를 살펴보고, 유아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이 대인 대상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며, 마지막으로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이 유아의 인지양식인 장 독립성-장의존성과 사려성-충동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 및 선행연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유아의 대인간 문제해결능력은 연령과 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나는가?
- 연구문제 2. 유아의 대인간 문제해결능력은 대인특성에 어떠한 차이가 나는가?
- 연구문제 3. 유아의 대인간 문제해결능력은 유아의 인지양식과 어떠한 관계를 보일 것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대인간 문제 해결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만 5, 6세 남녀 유아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을 만 5, 6세 유아로 정한 이유는 3세부터 7세까지의 전조작기 유아들 중 전조작기 후기인 만 5, 6세 유아들이 발달 특성상 대인간 문제 해결능력에 대한 도구를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

〈표 1〉 연령과 성별에 따른 연구 대상

학년/성	남	여	전체
만 5세	20명	20명	40명
만 6세	20명	20명	40명
전체	40명	40명	80명

어 본 연구의 대상으로 적절하며, 연령차를 보기 위하여 5세(평균 5년 4개월)와 6세(평균 6년 3개월) 유아를 각각 대상으로 하였다. 연령과 성별에 따른 유아들의 분포는 〈표 1〉과 같다.

조사 대상 유아들은 서울 양천구에 소재한 어린이집 2곳의 50명과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1곳에 다니고 있는 아동 30명으로 유의표집 하였다. 연구대상 유아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2〉 연구대상 유아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변인	구분	N(%)		
		양천구(N=50)	안양시(N=30)	합계(N=80)
부모의 학력 (아버지)	고졸이하	12(24.0)	7(23.3)	19(23.4)
	대졸	28(56.0)	18(60.0)	46(57.5)
	대졸 이상	10(20.0)	5(16.7)	15(30.0)
부모의 직업 (아버지)	근로생산직	3(6.0)	1(3.3)	4(5.0)
	농수축산업	1(2.0)	0(0.0)	1(1.3)
	서비스직	3(6.0)	3(10.0)	6(7.5)
	영업직	2(4.0)	2(6.7)	4(5.0)
	사무직	11(22.0)	5(16.7)	16(20.0)
	관리·경영직	10(20.0)	7(23.3)	17(21.3)
	전문·기술직	14(28.0)	7(23.3)	21(26.3)
	기타	6(12.0)	5(16.7)	11(13.8)
월 소득	100만원이하	2(4.0)	2(6.7)	4(5.0)
	100-200만원	13(26.0)	10(33.2)	23(28.8)
	200-300만원	21(42.0)	12(40.0)	33(41.3)
	300만원이상	14(28.0)	6(20.0)	20(25.0)

두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의 경우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학력은 대졸이 가장 많았으며, 아버지의 직업은 두 지역 모두에서 전문·기술직, 관리·경영직, 사무직의 순서로 나타났다. 월소득의 경우도 두 지역 모두에서 200만원-300만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지역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비교적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대인간 문제해결력 검사

유아의 대인간 문제해결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Spivack(1976) 등의 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 Solving Test를 토대로 하여 박찬옥(1986)이 제작한 「대인문제 해결사고 검사」를 실시하였다. 대인문제 해결사고 검사의 구성은 대인적 해결사고, 결과예측 사고, 원인적사고, 수단-

목적 사고 등 4가지 하위사고 검사로 되어있다. 4가지 하위 사고 검사는 대인 대상별로 친구, 어머니, 교사의 경우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대안적 해결사고는 주어진 대인문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으로 투입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생각해 내는 능력이다. 대안적 해결사고의 핵심은 가능한 해결방안을 다양하게 생각해 내는 것이다. 결과예측 사고는 자신과 타인에게 미치는 대인관계 행위의 영향을 평가해 보는 능력으로 자신의 사회적 행동의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나 자신에게 가져올 영향에 대해 숙고하는 것이다. 원인적 사고는 타인의 행동에 대하여 그 동기나 원인을 통찰하는 능력으로 일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와 도중에 장애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해내는 능력이다. 수단-목적사고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계획을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수단을 이용하며, 장애를 예상하고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도달하는 능력이다.

대인문제 해결사고의 4가지 하위사고별로 대인 대상인 친구, 어머니, 교사의 경우에 따라 각각 대인문제가 일어나는 상황에 등장하는 인물 그림 카드 2장과 사물 그림카드 1장 등 3장의 그림카드를 준비하여 유아에게 제시하며 대인문제 상황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로 들려준 후, 검사자의 질문에 유아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대답하도록 하였다. 유아에게 제시되는 그림카드와 이야기의 내용은 남아용 여아용이 따로 구별되어 있다.

유아는 각각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최고 10회까지 반응할 수 있다. 채점 방법은 대인문제 해결사고 검사지에 기록된 유아의 반응을 토대로 대안적 해결사고, 결과예측 사고, 원인적 사고, 수단-목적 사고 등 4가지 하위사고의 반응범주에 따라 해결방안에 속하는 것은 1점, 해결방안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점수를 주지 않았다. 대인문제 해결사고의 대상인 친구, 어머니, 교사에 따라 점수(점수범위 : 0~10점)를 산출한 후 이를 합산하였다. 합산된 대인문제 해결사고 점수의 범위는 0~3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간 문제해결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2) 유아의 장독립성-장의존성 인지양식 측정을 위한 검사

본 연구의 검사도구는 Coates(1974)의 유아용 숨은도형찾기검사(Preschool Embedded Figures Test)를 전윤식과 장혁표(1986)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표준화 한 유아용 인지양식 검사도구이다. 이 검사도구는 3~5세 유아가 흥미를 느낄만한 다양한 그림 속에서 단순한 세모꼴을 찾아내는 것으로 개인용 인지양식 검사도구이다. 검사 문항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아와 검사자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게 위한 예비 과제지와 정삼각형이 그려져 있는 3장의

연습문제, 그리고 24장의 본 검사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방법은 유아와 검사자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보기와 같은 동물(고양이)을 찾아내는 예비과제를 실시한 뒤 단순한 세모꼴을 찾아내는 연습문제를 하도록 되어있다. 연습문제는 3회에 걸쳐 시행하되, 3회 모두 틀린 답을 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는 검사자가 세모꼴을 직접 가르쳐 줌으로써 유아가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 후, 연습용 검사를 완전히 이해하면 본 검사로 들어간다. 본 검사의 제한 시간은 30초 이내로 하고 2회에 걸쳐 실시하며, 문항 3까지는 유아가 틀린 반응을 했을 때 추가적 설명을 일체하지 않는다. 검사에 대한 반응은 옳은 반응, 틀린 반응, 중도포기 및 시간초과의 네 가지 유형으로 하되 30초 이내에 옳은 반응을 한 경우에만 1점을 주고, 나머지 세 유형의 반응에는 0점을 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장독립적인 인지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며 점수 범위는 0-24이다.

(3) 사려성-충동성 인지양식 검사

사려성-충동성 인지양식 검사도구는 Kagan(1966)이 개발한 MFFT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반응하기가 불확실한 시각적 변별과제로 되어있으며 사려성 및 충동성을 구별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MFFT검사는 2개의 보기 문항과 12개의 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는 한 개의 표준그림과 이와 매우 유사한 6개의 선택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 검사에서 측정하는 것은 각 문항에 대한 첫 반응시간과 정답이 나올 때까지의 오류수의 합이다. 이 검사는 정답이 나올 때까지 반응한 오답수와 문제가 제시되고 나서 처음으로 반응이 나올 때까지의 반응시간을 피험자에게는 보이지 않게 스톱워치를 사용하여 초단위로 측정한다. 오답수가 많을수록 반응시간이 짧을수록 충동적인 인지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3. 조사절차

(1) 예비조사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유아들이 도구의 내용을 이해하는지의 여부와 소요시간을 알아보고자 만 5세, 만 6세 유아 각각 5명씩 10명을 대상으로 2005년 6월 25일부터 6월 28일에 걸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되었고, 유아의 질문지에 대한 이해정도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연구 대상 유아를 한 명씩 교실로 데리고 와 테이블에 마주 앉아 라포를 형성한 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도구에 기록된 각각의 하위사고별 문항 내용을 유아에게 질문하고, 유아가 반응한 해결 방안을 대인문제 해결사고 기록 용지와 인지양식 기록 용지에 기록하였다.

(2) 본 조사

본 조사는 2005년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예비조사 후에 실시되었다. 본 조사는 연구자 1인과 연구보조자 1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예비조사 결과 세 가지 검사를 모두 실시하는데 40분 정도 소요되었으므로, 유아의 주의 집중 시간을 고려하여 2회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대상 유아는 오전 자유놀이 시간과 점심시간, 오후 자유놀이 시간 그리고 미술시간 중에 어린이집 교실에서 한명씩 개별적으로 검사에 응하였다. 유아들의 긴장감과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 아이들의 흥미거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여 라포를 형성한 후 실험에 들어갔으며 본 검사에 들어가기 전 연습문제에서 연구자가 검사 도구에 있는 그림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유아들이 검사도구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 하였다. 유아들 대부분은 2회로 나누어진 검사를 무난히 할 수 있었지만 검사를 힘들어하는 소수의 유아들에게는 4회로 나누어 검사를 하였다.

〈표 3〉 지역에 따른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의 차이

문제해결	지역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값
대안적 해결사고	양천구	50	3.75	2.02	-1.25
	안양시	30	4.35	2.27	
결과예측사고	양천구	50	3.83	2.23	.39
	안양시	30	3.65	1.79	
원인적 사고	양천구	50	2.68	1.70	-.685
	안양시	30	2.93	1.56	
수단-목적사고	양천구	50	3.03	2.17	.93
	안양시	30	2.60	1.92	

4. 자료 분석 방법

유아의 연령과 성에 따른 인지양식과 대인문제 해결력의 점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고, 대안특성에 따른 대인간 문제 해결능력의 점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연령과 성별, 대인대상의 변인에 따라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하였다. 또한, 인지양식과 대인간 문제 해결능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연령과 성별에 따른 대인간 문제해결능력

우선 연구대상이 속한 두 지역의 유아들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 점수 분포가 같은지를 파악하였다. 이는 집단 간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상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두 지역간에는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대인간 문제해결능력이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른지를 알기위해 우선 연령과 성별에 따른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대인간 문제해결능력 점수의 연령과 성별에 대한 이원변량분석결과는 〈표 5〉과 같다.

대인간 문제해결능력이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이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하위요인인 대안적 해결사고, 결과 예측 사고, 원인적 사고, 수단-목적 사고에 따라 이원변량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대인간 문제해결능력

〈표 4〉 연령과 성별에 따른 대인간 문제해결능력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하위요인	연령 성별	5세		6세		전체	
		M	SD	M	SD	M	SD
대안적 해결 사고	남	3.13	2.24	4.68	1.65	3.90	1.95
	여	3.43	2.36	4.98	1.77	4.20	2.07
	전체	3.28	2.30	4.83	1.71	4.05	2.01
결과 예측 사고	남	2.95	2.03	4.63	1.92	3.79	1.97
	여	2.86	1.76	4.54	1.65	3.70	1.70
	전체	2.90	1.89	4.58	1.78	3.75	1.84
원인적 사고	남	2.02	1.69	3.49	1.26	2.76	1.47
	여	2.11	1.62	3.61	1.19	2.86	1.40
	전체	2.05	1.65	3.55	1.22	2.81	1.44
수단-목적 사고	남	2.19	2.04	3.66	1.91	2.93	1.98
	여	1.97	1.92	3.44	1.79	2.71	1.85
	전체	2.08	1.98	3.55	1.85	2.82	1.92

〈표 5〉 성별과 연령에 따른 대인간 문제해결능력의 이원변량 분석 결과

하위요인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제곱	F
대안적 해결사고	성별	2.20	1	2.20	1.67
	연령	16.54	1	16.54	12.512**
	성별×연령	3.04	1	3.04	.134
결과예측 사고	성별	.20	1	.20	.184
	연령	18.70	1	18.70	16.81***
	성별×연령	3.04	1	3.04	.103
원인적 사고	성별	.42	1	.42	.59
	연령	15.00	1	15.00	21.10***
	성별×연령	.15	1	.15	.21
수단-목적 사고	성별	1.20	1	1.20	.970
	연령	14.50	1	14.50	11.68**
	성별×연령	.00	1	.00	.00

** $p < .01$, *** $p < .001$

은 유아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선행연구(김은희, 이영, 1991; 박찬옥, 1986; Marsh, 1982)에서 성별에 따라서는 대인문제 해결능력의 점수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대인간 문제해결능력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김은희, 1990; 김선주, 2002)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인간 문제해결능력의 점수가 높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네 하위요인에서 연령과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2. 대인 대상에 따른 대인간 문제해결능력

대인 대상에 따라 유아들의 대인간 문제해결능력에 차이

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인간 문제 해결능력의 각 하위요인별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유아의 대인 대상에 따른 문제해결 점수는 모든 하위 영역에서 대인 대상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들은 같은 문제해결영역에서도 상호작용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다른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또래의 경우 어머니나 교사에 비해 모든 하위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와 교사 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반복 측정 변량 분석을 하였다. 연령과 성별, 대인 대상에 따른 대안적 사고점수의 반복 측정 변량 분석의 결과는 〈표 7〉와 같다.

〈표 7〉에 의하면 대안적 사고 점수는 대인 대상에 따라 유의하게 나타났다. 대인 대상이 어머니나 교사보다 친구일 경우 해결 방안의 점수가 더 높았으며 교사와 어머니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들(Adalbjarnardottir & Selman, 1989)과 일치하는 것으로, 유아와 유아 유아와 성인간의 상호작용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Hartup, 1983; Youniss, 1980)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어느 집단간에 존재하는지를 알기 위해 Scheffe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모든 영역에서 친구와 부모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으며, 친구와 교사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교사와 부모간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유아의 인지양식과 대인간 문제 해결능력간의 관계

우선 연구대상이 속한 두 지역의 유아들의 인지양식 점수

〈표 6〉 대인 대상에 따른 대인간 문제해결능력 점수의 평균 및 표준 편차

하위요인	대인 대상	사례수	평균	표준오차	Contrast		
					집단	1	2
대안적 해결사고	친구	80	2.64	1.29	1		
		80	.78	.81	2	*	*
		80	.65	.71	3		
	어머니	80	2.40	1.07	1		
80		.76	.72	2	*	*	
80		.58	.74	3			
결과예측사고	친구	80	1.85	1.23	1		
		80	.60	.70	2	*	*
		80	.36	.62	3		
	어머니	80	1.79	1.05	1		
80		.55	.65	2	*	*	
80		.46	.64	3			
원인적 사고	친구	80	1.79	1.05	1		
		80	.55	.65	2	*	*
		80	.46	.64	3		
	어머니	80	1.79	1.05	1		
80		.55	.65	2	*	*	
80		.46	.64	3			
수단-목적사고	친구	80	1.79	1.05	1		
		80	.55	.65	2	*	*
		80	.46	.64	3		
	어머니	80	1.79	1.05	1		
80		.55	.65	2	*	*	
80		.46	.64	3			

* $p < .05$

〈표 7〉 연령과 성별, 대인 대상에 따른 대인간 문제해결능력의 반복 측정 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제곱	F
대안적 해결 사고	집단간	성별	2.20	1	2.20	1.67
		연령	16.54	1	16.54	12.512**
		성별×연령	3.04	1	3.04	.134
		오차	100.45	76	1.32	
		집단내				
		대인대상	40.25	1	40.25	94.78***
		대인대상×성별	.02	1	.02	.05
		대인대상×연령	3.17	1	3.17	7.46
		대인대상×성별×연령	.47	1	.47	1.10
결과 예측 사고	집단간	성별	.20	1	.20	.184
		연령	18.70	1	18.70	16.81***
		성별×연령	3.04	1	3.04	.103
		오차	84.55	76	1.11	
		집단내				
		대인대상	28.03	1	28.03	73.85***
		대인대상×성별	.03	1	.03	.08
		대인대상×연령	1.01	1	1.01	2.67
		대인대상×성별×연령	.08	1	.08	.20
원인적 사고	집단간	성별	.42	1	.42	.59
		연령	15.00	1	15.00	21.10***
		성별×연령	.15	1	.15	.21
		오차	54.03	76	.71	
		집단내				
		대인대상	17.63	1	17.63	44.946***
		대인대상×성별	.01	1	.01	.02
		대인대상×연령	1.88	1	1.88	4.78
		대인대상×성별×연령	.00	1	.00	.00
수단-목적 사고	집단간	성별	1.20	1	1.20	.970
		연령	14.50	1	14.50	11.68**
		성별×연령	.00	1	.00	.00
		오차	94.35	76	1.24	
		집단내				
		대인대상	13.67	1	13.67	32.09***
		대인대상×성별	.02	1	.02	.04
		대인대상×연령	1.87	1	1.87	4.75
		대인대상×연령×성별	.10	1	.10	.24

** $p < .01$, *** $p < .001$

분포가 같은지를 파악하였다. 이는 집단 간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상의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두 지역간에는 인지양식 점수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장 독립성-장의존성 인지양식, 사려성-충동성 인지양식 검사 점수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분포는 〈표 9〉과 같다.

유아의 인지양식과 대인간 문제해결능력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유아의 장독립성-장의존성 인지양식, 사려성-충동성 인지양식 검사 점수와 대인간 문제 해결능력의 각 하위 요인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는데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아의 장독립성-장의존성 인지양식과 대인간 문제 해결력 간에는 모든 하위 영역에 있어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장독립성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방안의 수가 많았으며, 결과예측 점수가 높고, 원인적 사고점수가 높으며, 수단-목적 사고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표 8〉 지역에 따른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의 차이

인지양식	지역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장독립성-장의존성	양천구	50	17.55	4.74	-1.26
	안양시	30	18.90	4.81	
사려성-충동성	양천구	50	11.65	6.68	-6.87
	안양시	30	12.78	7.96	
충동성	양천구	50	2.62	.83	1.651
	안양시	30	2.36	.57	

〈표 9〉 연령과 성별에 따른 인지양식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인지양식	연령 성별	5세		6세		전체		
		M	SD	M	SD	M	SD	
장독립성-장의존성 인지양식	남	17.10	4.90	18.68	4.36	17.89	4.63	
	여	17.78	4.94	19.35	4.39	18.57	4.67	
	전체	17.44	4.92	19.02	4.38	18.23	4.65	
사려성-충동성 인지양식	반응시간	남	10.89	7.54	12.97	6.04	11.93	6.79
		여	11.46	8.18	13.54	6.68	12.50	7.43
		전체	11.18	7.86	13.26	6.36	12.22	7.11
	오답수	남	2.67	.69	2.44	.82	2.56	.76
		여	2.54	.56	2.31	.69	2.43	.63
		전체	2.61	.63	2.38	.76	2.50	.70

〈표 10〉 유아의 인지양식과 대인간 문제 해결능력간의 상관관계

	대안적 해결사고	결과예측 사고	원인적 사고	수단-목적 사고
장독립-장의존	.435**	.325**	.223*	.454**
사려성- 충동성				
반응시간	.167	.097	.131	.183
과오수	-.375**	-.279*	-.223*	-.251*

*p<.05, **p<.01

는 사물의 배경이 되는 주변 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물을 명확하게 지각하는 장 독립적 집단이 주변 장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복잡한 자극에 대하여 비분석적이고 직관적으로 지각하는 장의존적 집단보다 대인간 문제해결능력에서 우수하다는 연구결과들(김진호, 1985; 정윤주, 1993)과 일치한다.

또한 사려성-충동성 인지양식을 측정하는 하위요인 중 반응시간은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수만이 대인간 문제 해결력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과오수를 가지고 사려성-충동성 인지양식을 측정한 결과 유아들이 더 충동적일수록 대안적 해결사고, 결과예측사고, 원인적 사고, 수단-목적 사고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려적 인지집단이 충동적 인지집단보다 대인간 문제해결능력에서 점수가 높게 난다는 연구들(김성덕, 1990; 이경남, 이도경, 1995)과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대인간 문제해결력을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살펴보았으며, 대인 대상에 따라 대인간 문제해결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대상이 또래일 때와 부

모와 교사일 때에 따라 다르게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아의 문제해결 능력이 유아가 지니고 있는 장독립성-장의존성 인지양식과 사려성-충동성 인지양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만 5, 6세 남녀 유아 8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유아의 대인간 문제해결력은 성별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성차를 밝힌 대부분의 선행연구(Shure, 1992, 김은희; 1990; 1994; 김선주, 200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가 타인을 배려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 등의 교육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남녀 유아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유아의 대인간 문제 해결력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대인간 문제 해결능력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Adalbjarnardottir & Selman, 1989)과 일치하는 것으로, 6세 유아가 5세 유아보다 또래와의 경험도 많고 인지적 수준도 높으므로 문제 해결 상황에서 더 다양한 대안을 생각해 내고, 자신의 사회적 행동의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영향을 잘 숙고하며, 타인의 행동에 대하여 그 동기나 원인을 더 잘 고려하며,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을 구상하여 단계적으로 수단을 이용하는 등의 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유아의 대인간 문제해결력이 대인대상에 따라 다른지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대상 중 친구일 경우가 어머니와 교사의 문제 해결점수보다 더 높은 점수가 나왔고 어머니와 교사의 점수는 별 차이가 없었다. 이는 유아가 성인이나 또래에 대한 행동은 다르다는 것을 지각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데 유아가 어머니나 교사 등의 성인보다 또래일 경우 관계가 수평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편하고 긴장감을 없앨 수 있어 문제 해결

시 더 많은 방안을 낼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넷째, 유아의 장독립성-장의존성 인지양식과 대인간 문제 해결력 간에는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즉 장독립적인 유아일수록 대인간 문제 해결력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장독립적인 인지양식을 가진 유아들이 어떤 사건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보다는 문제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내는 능력이 더 발달해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은 문제를 높은 수준에서 해결해야 하는 인지적 사고력이 요구되므로 분석적이고 주위의 영향을 덜 받는 장독립적인 인지양식을 가진 유아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유민임, 2005). 또한 이러한 결과는 장의존적인 유아들이 장독립적인 유아들보다 보편적인 사회 준거 체계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 주변의 사회적인 요소에 민감한 경향이 있다는 보고(Saracho, 1985)와 장의존적인 유아가 장독립적인 유아보다 과제 수행시 인지 환경의 영향에 더 민감했다는 보고를 바탕으로 설명될 수 있다. 본 연구가 유치원에서 일대일 개별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유아들이 긴장감을 느꼈음을 고려해보면, 사회적 단서에 보다 민감한 장의존적 유아의 과제수행이 상대적으로 더 저조하며 장독립 집단의 대인간 문제 해결력 점수가 더 높았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섯째, 유아의 사려성-충동성 인지양식과 대인간 문제 해결력 간에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사려성-충동성 인지양식의 하위요인인 반응시간과 과오수 중 과오수만이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대인간 문제 해결능력이 있어서 사려적 인지양식 집단이 충동적 인지양식 집단에 비해 문제해결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유아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이 모든 대인 대상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과 유아 간에 다르게 나타남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같은 성인일지라도 다른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교사와 부모 간에 다른 대인간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였지만, 상호작용의 내용은 달라도 성인에 대해서는 비슷한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그동안 Piaget의 영향을 받아 전조작기의 유아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타인의 관점이나 감정을 이해하는 조망수용능력을 획득하지 못하여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이 없다고 보고한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5, 6세의 전조작기에 있는 유아들도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이 있으며 이러한 능력이 연령에 따라 차별적으로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국내의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유아의 장독립성-장의존성 인지양식, 사려성-충동성 인지양식과 대인간 문제 해결 능력 간에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만 5, 6세 두 연령층과 3개의 기관의 유아들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좀 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인지양식과 대인간 문제 해결능력간의 발달적 경향성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 또한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등 연구대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정보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인지양식 중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한 장독립성-장의존성 인지양식과 사려성-충동성 인지양식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장독립성과 사려성, 장의존성과 충동성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연구결과들(박운배, 조운경, 2006; 유민임, 2005)이 많다. 이들에 의하면 문제해결능력에서 장독립적인 인지양식을 가진 아동과 사려적인 인지양식을 가진 아동들이 장의존적인 인지양식과 충동적인 인지양식을 아동들보다 우수하며, 이는 인지양식이 주변 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물을 명확하고 침착하게 지각하느냐, 아니면 주변 장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자극에 대하여 비분석적이며 직관적, 충동적으로 지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장독립성과 사려성을, 그리고 장의존성과 충동성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차별적인 다른 인지양식을 고려하여 대인간 문제해결능력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대인간 문제 해결능력의 측정을 위한 검사가 가설적 상황의 지필검사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실제 상황의 대인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관찰과 함께 보다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아의 정서, 사회적 면보다는 학습 면에만 중점을 두려고 하는 우리의 교육 체계에 사회적 적응에 필수적인 요인인 대인간 문제 해결능력이라는 변수를 정하여 사회적 발달의 중요성을 강조하려 하였으며 그 관련 변인을 밝히고자 한에 의의를 둘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기관이나 가정에서 유아에게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교육을 시키고자 할 때 대인대상에 따라 차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유아의 인지양식 중 유아에게 장독립적인 면과 사려적인 면을 발달시켜주어야 한다는 제안점을 제시해 줄 수 있다.

■ 참고문헌

- 권숙영(1991). 인지양식, 통제소재 및 학업성취도와와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권영실(1988). 아동의 장독립성 인지양식과 공간 조망능력과

- 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경애(2002). 타인의 마음에 대한 유아의 이해능력에 따른 대인문제 해결 능력.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선주(2002). 유아의 정서지능과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성덕(1990). 인지양식과 문제해결과정 및 성취도와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중(1995). 문제해결극 참여관찰이 유아의 대인관계사고 및 대인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은희(1990). 학령 전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능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은희, 이영(1991). 학령전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2(1), 52-67.
- 김재은(1998). *아동의 인지발달*. 서울: 창지사
- 김주연(2000). 유아의 장독립적-의존적 인지양식과 창의성의 관계.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진호(1995). 장의존적-장독립적 인지양식과 문제해결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정(2001). 유아의 또래간 실제적 갈등상황에 대한 이야기 조망수용 및 대인문제해결사고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남현영, 이소은(2004).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에 따른 유아의 조망수용능력과 대인문제해결력. *한국생활과학회지*, 13(4), 485-496.
- 박운배, 조운경(2006). 학생들의 인지양식에 따른 물리 문제 해결과정 분석.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6(4), 502-509.
- 박찬옥(1986).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사고에 관한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혜은(1998). 토의 교수 학습방법이 유아의 대인문제 해결 사고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서연원(1999). 유아의 또래 인기도와 대인문제 해결사고와의 관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성미영(2006). 유아의 대인간 문제해결 전략과 유아의 정서성, 정서지식, 사건지식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4(5), 59-68.
- 손승희, 이은혜(2004). 아동의 또래유능성과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 및 어머니 양육 행동과의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2(4), 167-177.
- 심혜숙, 왕정희(2001).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 및 대인문제해결력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63-175.
- 유민인(1005).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인지양식, 정서지능, 그리고 대인문제해결력. *열린유아교육연구*, 10(4), 317-335.
- 유재은(2001). 어머니의 언어유형이 유아의 대인 문제 해결 사고에 미치는 영향. 배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윤영신(1992).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력과 사회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경남, 이도경(1995). 아동의 연령, 성 및 인지양식 유형에 따른 대인간 문제해결능력. 동아대학교 생활과학 연구소: *생활과학연구논문집*, 3, 77-102.
- 이경자(1990). 유아의 장독립성-의존성 인지양식과 사회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병림(1996).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력과 또래 집단에서의 인기도와와의 관계.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전운식, 장혁표(1986). 집단잠입도형검사. 코리안 테스트 센터
- 정운주(1993). 아동의 인지양식과 대인문제해결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은정(2004). 아동기의 정서적해대 경험이 대인관계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자기효능감과 통제소재를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진형(1983). 부모의 양육태도와 3-5세 아동의 장독립성 인지양식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Adalbjarnardottir, S., & Selman, R. L.(1989). How children propose to deal with the criticism of their teachers and classmates: Developmental and stylistic variations. *Child Development*, 60, 539-550.
- Bullock, M., & Gelman, R.(1979). Preschool Children's Assumption about Cause and Effect; Temporal ordering. *Child Development*, 50, 89-96.
- Bullock, M., & Gelman, R., Meck, E.(1980). Preschoolers' understanding of simple object transformations. *Child Development*, 51, 691-699.
- Coates, S. W.(1974). Sex differences in field dependence -independence between the ages of 3 and 6. *Perceptual and motor Skill*, 39, 1307-1310.
- Dodge, K. A., Pettit, G. S., McClaskey, C. L & Brown, M.M(1986).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rch in Child Development*, 51.
- Goldstein, K. M., & Blackman, S.(1978). *Cognitive Styles*.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Goodenought, D. R.(1976). The role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field dependence as a factor in learning and memory. *Psychological Bulletin*, 83, 675-694.
- Gottman, J. M., Gonson, J, & Rasmussen, B.(1975). Social

- interaction, social competence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323-340.
- Hartup, W. W. (1983). Peer relations. In P.H. Mussen(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pp.103-196). NY: Wiley.
- Harvey, O. J.(1963). Authoritarianism and conceptual functioning in varied conditions. *Journal of Personality*, 31, 492-470.
- Kagan, J. (1966). Reflection perceptual tempo.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1, 17-24.
- Kagan, J., & Kagan, N.(1980). Individual variation in cognitive processes. In P. H. Mussen(Eds.), *Carmichael's Manual of Child Psychology*, Vol. 1. N.Y; Wiley.
- Marsh, D. T.(1982). The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amo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0, 107-118.
- Messick, S.(1970). The criterion problem in the evaluation of instruction; Assessing possible, not just intended, outcomes. In M.C.Wittrock & D. Wiley(Eds.), *The evaluation of instruction; Issue and problems*. N.Y.; Holt, Rinehart, & Winston.
- Saracho, O. N.(1985). Young children's play behavior and cognitive styl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22, 1-18.
- Shure, M. B.(1982).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A cog in the well of social cognition. In F. C. Serafica(Ed), *Social cognitive development in context*. N.Y.; Guilford.
- Shure, M. B.(1992). I can problem solve(ICPS): *An Interpersonal problem-solving program(preschool)*. Champaign, IL: Research Press.
- Spivack, G., & Levine, M.(1976). *Self-regulation in acting-out and normal adolescents*.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Washington D.C.
- Witkin, H. A, Lewis, H. B., Hertzman, M., Machover, K., Messner, P. B., & Wapner, S.(1954). *Personality through perception*. N.Y.; Harper.
- Youniss, J.(1980). *Parents and peers in social development; A Sullivan-Piaget perspectiv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6년 8월 17일 접수, 2006년 11월 6일 채택)